

■르포-‘타르 덩어리’ 밀려든 무안 해변

# 양식장 버려둔 채 칼바람 속 방제

## “설마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검은재앙’ 확산...인력·장비 턱없이 부족

“설마설마했는데,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타르 덩어리’가 전남 서해안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2일 오전 무안군 해제면 해변. 주민들은 눈앞에 닥친 ‘재앙’에 할말을 잃었다. 해변으로 밀려온 타르덩어리를 걷어내고 있지만 강풍과 풍랑으로 정작 생업 현장인 양식장에는 며칠째 가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4km 해변에 1~2m 폭의 타르 덩어리가 유입된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송계마을 해변에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는 주민이 수거한 타르 덩어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있다. 또 인근 해변에서는 기름에 묻은 갈매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왼내).

남해안 타르 덩어리는 계속 해변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고운 모래로 유명한 송계 해변은 먹물로 외줄을 그은 듯 폭 1~2m의 타르 덩어리가 4km에 걸쳐 이어져 있었다.

관공업계에 도 타격이 왔다. 일출로 유명한 도리포항에서 횡집을 경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새해 첫날 차 세울 곳이 없을 만큼 손님이 많았는데 올해는 단 두 팀만 가게를 찾았다”며 “벌써부터 기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푸념했다.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어촌계장인 박상범(52)씨는 “그나마 기온이 낮아서 동겨지는 타르 덩어리들을 쉽게 수거할 수 있었지만 만약 날씨가 풀려 갯벌로 스며들었다면 낙지와 바지락 등은 수년 동안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며 “김발 등 기름기가 묻은 양식 어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대 양식업자의 피해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 같다”고 한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목포지역 의용소방대 등 인근지역의 유관기관 봉사자 이외에 개인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며 “밀려오는 타르의 양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형”이라고 말했다.

## 해남 ‘땅끝 도서관’ 어린이들 아름다운 ‘저금통 기부’

한해가 저물어가는 구랍 31일 오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가득 찬 노랑·빨강·황금색 돼지저금통 3개가 도착했다.

3개의 돼지저금통에 담긴 돈은 모두 17만9천550원. 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성금치고는 적은 액수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렵지만 꿈을 잃지않고 살아가는 착한 어린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돼지저금통의 발신자는 해남군 땅끝마을에 위치한 ‘땅끝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땅끝아동센터는 지난 2002년 ‘땅끝공부방’으로 문을 열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40여명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곳이다.

지난 2006년 건물이 매각되면서 공부방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가 ‘기부천사’인 영화배우 문근영양의 도움으로 지난해 6월 땅끝아동센터로 다시 태어났다. (본보 2007년 1월 26일 1면)

“근영이 언니가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연탄 한 장이라도 도와드리자.”

땅끝아동센터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어린이들은 전체회의를 갖고 ‘나눔’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린이들은 ‘조금씩 모아

행복을 나누자’라며 식탁 앞에 돼지저금통을 놓고 저금하기 시작했다. 저금통 걸엔 ‘이삭줍기’라고 쓴 후 10원부터 1천원까지 용돈을 쪼개 집어넣기 시작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거리는 4km. 날씨가 좋은 날엔 학교와 센터를 걸어나며 버스비를 모았다. 라면을 끓여먹을 때도 꼭 한 개씩 덜 사서 남은 돈을 저금통에 넣었다. 농작물을 거두고 난 뒤 땅에 떨어진 낱알을 주어 까니를 해결했던 이

사줍기와 같이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대신 이삭(기부금)을 모아 저금통

에 넣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모은 저금통 두 개와 해남읍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한 후원자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사주라’며 전달한 저금통까지 합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것이다.

아동센터 김혜원 원장은 “아이들이 아끼고 아낀 돈을 저금통에 넣은 후 행복해 하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 ‘돈만 넣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너무 적은 돈이어서 부끄럽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에 시작한 일이지만 큰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나원침 (7399) 김종두



“문근영 언니에 받은 은혜

불우 이웃들에 돌려 주자”



북부경찰 새해 첫날 교통사고 全無

○광주 시내 경찰서 중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평가를 받아 온 광주 북부경찰이 지난 1988년 10월 개서(開署)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1일과 2일에 걸쳐 24시간동안 단 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화제.

○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관내에서 교통사고는 물론, 유증전도 단 한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1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날은 교통사고조사가 조용했다”며 “새해 첫날부터 평온한 하루를 보냈는데, 앞으로도 이런 날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즐거운 표정.

○한편, 북부경찰은 지난 2005년 1월 7일 경찰서내 피의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의미에서 백기를 청사에 게양하기도. /이종형 기자 galee@

## 인터넷 ‘신정아 연서’ 건네도 성희롱?

### 여교사 남편이 목포교육청 간부 인권위 제소

신정아 파문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일명 ‘신정아 연서’를 건네 준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까. 목포 모 중학교 여교사의 남편인 J씨는 지난달 목포교육청 간부 K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신정아 연서’를 건넨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했다. K씨가 여교사에게 보여준 것은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정아 연서’와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청 간부 K씨는 “지난달 11일 목포시교육청에서 교원단체와 교원평가를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지인으로부터 받은 클립트

의 ‘키스’란 작품을 해당 여교사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때 ‘신정아 연서’가 함께 전달된 것 같다”며 성희롱 사실을 부인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K씨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K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인권위 성차별팀은 진정내용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정아 연서’ 전달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진보연대 허연씨 징역 1년6월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2일 FTA 반대 시위 등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전남 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연(5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각종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했으며, 특히 지난 2006년 11월22일 한미 FTA 반대집회 당시 광주시청 진입 시도 등 불법 폭력시위를 번지게 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

## 한총련 의장 부산서 검거

###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은 2일 새벽 1시 45분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앞 PC방에서 1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인 류선민(24·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 회장)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04년 7월 광주 송정리 공군부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반대 불법집회에 참석했고, 이적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학생운동 토론 등을 위해 전국 대학 순회 중이던 류씨를 동아대 인근 PC방에서 붙잡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100년의 사랑 - 부채표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젊다고 뒤통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약,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일 028-0200]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